

《유곽의 역사》 선정기

매매춘에 내몰린 민중의 고단함을 녹여내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지만, 유독 책에 대해서만은 그 단순한 진리를 적용하지 못한다. 첫 장을 넘기고서야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건만, 책 한 권을 쥐고도 '마음의 양식'을 삼지 못하고 효과와 효율만을 찾아 책장을 뒤통이로 넘기고야 만다. 다시 생각해 본다. 책, 과연 21세기 지식경쟁사회의 최후 보루인지, 마음의 양식인지.

글_장동석 기자

이 달의 책 선정위원

김광일 조선일보 문화부장 · 김연수 소설가
나신하 KBS 문화복지팀 출판담당 기자 · 이이화 역사학자

《달려라 냇물아》 최성각 지음 | 녹색평론사 | 312쪽 | 값 11,000원

환경과 생명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관심과 염려를 이 시대의 삶과 사상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최성각은 예외적인 인물이다. 15년 넘게 '환경판'의 뛰어난 글쟁이로서 새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온 그는, 산문집 《달려라 냇물아》를 통해 이 시대 주류문화의 상식과 맞서 '생명'과 인간의 가치를 역설한다.

《헌법 줄게 새법다오》 박성철 지음 | 이매진 | 368쪽 | 값 12,500원

언제부터가 헌법재판이라는 말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촉발된 헌법재판은, 이제 혼한 일상사처럼 다가온다. 저자는 한국 사회를 뒤흔든 헌법재판의 주요 결정들을 통해 헌법정신을 다시 한번 고찰한다. 인권과 양심, 신체, 영화, 표현, 언론, 집회, 행복, 평등 등 18가지 테마를 선정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과 저변에 담긴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다.

《국어선생님의 과학으로 세상읽기》 김보일 지음 | 휴머니스트 | 364쪽 | 값 15,000원

수능만을 위해 달려가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에게 인문학과 과학은 그저 허울 좋은 미망일 뿐이다. 저자는 현장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인문학의 화두들을 과학에서의 사례들과 연결 짓는 영역 전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유연한 사고력을 키워주고 싶은 바람을 가진 사람이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수없이 고민한 저자의 내공이

본격적인 가을을 앞두고 선보인 10월 이 달의 책 후보들은 저마다 '마음의 양식'이 될 법하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최성각의 《달려라 냇물아》, 박성철의 《헌법 줄게 새법다오》, 김보일의 《국어선생님의 과학으로 세상읽기》, 한승원의 《추사》(전2권), 강신주의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 양희경 등이 쓴 《영화 속 지형 이야기》, 홍성철의 《유곽의 역사》, 박남준의 《박남준 산방일기》 등 인문사회 분야와 산문집, 소설, 철학 등 다양한 장르에서 선택되었다.

역사와 르포가 공존하는 《유곽의 역사》

10월, 이 달의 책으로 선정된 홍성철의 《유곽의 역사》는 한국의 유곽의 기원과 현상을 살필 수작임에 틀림없다.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은 "기자의 감각으로 현장감을 살렸다"고 전제하고 "이 책은 또 하나의 현대 사요 생활사이며 여성사"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성매매 현장을 살피면서 그 유래 또는 변화의 과정을 현장감 있게 살렸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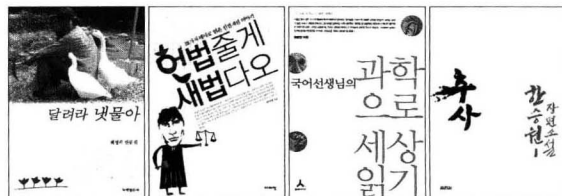
소설가 김연수 씨는 《유곽의 역사》를 가리켜 "역사와 르포가 공존하는 책"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양한 논문과 자료에서 얻어낸 데이터를 재구성해서 수량 위주로 접근한 점도 눈에 띈다. '집창촌 깊이 읽기'라는 항목을 통해 현재까지도 각 도시에 남아 있는 유곽의 흔적을 취재한 점은 유곽이 우리 삶과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정의했다.

한편 KBS 나신하 기사는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 문화가 경제 발전과 어깨동무를 하고 미친 듯 질주하는 사이 집창촌은 금기의 외피를 입고 번영을 구가하는 호시를 누렸다"면서 "가장 오래된 직업의 하나로 매매춘을 꼽기도 하지만, 매매춘 여성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비슷한 행태의 영업을 하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의 후예로서 손꼽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

여실히 드러난다.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쓰여졌지만, 국어 선생님이 쓴 인문학과 과학의 어우러짐이 궁급하다면, 그리고 그 기본기를 다지고 싶다면 일독할 가치가 있다.

《추사》(전2권) 한승원 지음 | 열림원 | 각 권 330쪽 | 각 권 값 9,500원

조선후기 명필가이자 천재 예술가로, 화려하지만 비운 했던 정치가로 조선 말기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추사 김정희의 우뚝한 삶과 예술을 곡진한 언어로 그린 장편소설이다. 현대인들에게 흔히 훌륭한 서예가로만 이름이 알려진 추사의 사상가이자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그려내었다. 이 작품은 추사 말년의 삶을 중심으로 예술가로서의 추사 외에도 지순지고한 정치가이자 북학파로서의 추사, 양자와 서얼자식을 둔 한스런 아버로서의 추사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새롭고 흥미롭다.



한다. 아울러 “소개뿐만 아니라 편집과 서술 방식에서도 독자의 흥미를 끌어가도록 정성을 들인 흔적이 묻어난다. 자칫 글을 통한 눈요기에만 그치지 않도록, 매매춘에 내몰린 민중의 고단함을 녹여 넣은 솜씨도 수준급”이라고 책의 가치를 추켜세웠다.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과 《국어선생님의 과학으로 세상읽기》

유쾌한 철학서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은 장자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점에서 선정위원들의 후한 점수를 받았다. 조선일보 김광일 부장은 장자를 현세 이탈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을 향해 “이 책은 그러한 장자 철학의 유산을 가볍게 배반한다”는 촌철살인의 해석을 붙여 주었다. 덧붙여 “어떤 사고이든 독단적으로 절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승될 수는 없다. 모든 것은 서로 만난다. 그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후학들의 고민이 돼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 작은 해답을 발견한다”고 책을 평했다.

김연수 씨는 “장자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전복적으로 뒤집는 동시에 현대의 철학과 맞닿는 부분을 탐색해서 장자를 현대화시키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사마천에서 라캉, 비트겐슈타인에서 들뢰즈까지 종횡무진 고급의 텍스트를 횡단하면서 ... 장자는 동시대적이다라는 깨달음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평을 보내왔다.

《국어선생님의 과학으로 세상읽기》는 인문학과 과학을 접목하려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의 노력을 높이 시는 분위기였다. 이이화 선생은 “저자는 자연의 혜택을 이용한 과학이 오늘날 ‘과학의 시대’를 만들었으나 누구를 위한 과학이냐고 반문한다. 곧 과학의 편리와 함께 그 폐단을 지적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 그리하여 인류에게 경고를 퍼붓는다. 성찰의 삶은 생태계를 살리는 지식이라 강조한다”고 책의 아우라를 설명한다.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 강신주 지음 | 그린비 | 296쪽 | 값 14,900원
속세를 초월한 ‘선선사상’으로 오해되어왔던 장자의 철학을 현실참여적 실천철학으로 재해석한 책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장자를 타자와의 소통과 연대를 추구한 철학자로 소개하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장자의 여러 우화들을 서구 현대철학과 접목시켜 해설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장사상으로 한데 묶여왔던 장자와 노자 사상의 차이를 드러내고, 들뢰즈나 부르디외 등 차이와 소통·연대에 대해 고민했던 현대 철학자들의 사유와 장자의 사유가 만나는 지점도 절묘하게 짚어내고 있다.

《영화 속 지형 이야기》 양희경·장영진·심승희 지음 | 푸른길 | 256쪽 | 값 15,000원
‘지형’이란 땅의 생김 모양을 뜻한다. 삶의 터전을 지역이라고 할 때 지역의 환경 중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형이다. 학교에서의 지리 수업 왜 배우는지조차 모르면서 암기하기 바빴던 지루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책이 보여주고자 하는 점은 단순하다. 인간 생활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설명 가능한 지역의 자연환경을 ‘영화’라는 영상매체를 통해 즐기면서 살펴보는 의도다. 세 명의 여성 지리학자들이 26편의 영화에서 발견한 10가지 지형을 다룬다.

《유곽의 역사》 홍성철 지음 | 페이퍼로드 | 360쪽 | 18,000원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위해 들어온 집창촌(유곽)은 철도의 발달과 함께 점차 조선 전국에 뿌리를 내렸다. 식민지 착취로 빈곤에 시달리던 여성과 성매매에 눈을 뜬 남성들은 집창촌에 빠져들었다.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집창촌은 굴곡진 한국사의 흐름과 함께 시기가

김광일 부장은 “경계에서 전압은 발생한다. 전압이 높아야 문화는 오래 그리고 멀리 전파된다. 국어 선생님이 과학을 말하고, 과학 선생님이 시를 가르칠 때 문화적 전압이 올라간다. 그것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층위를 생산한다는 뜻도 된다. 독자들의 생각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유연해지고 풍성해진다”고 강조했다.

《추사》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하다

한편 오랜만에 작품을 선보인 한승원 선생의 《추사》도 선정위원들의 고른 지지를 받았다. 김연수 씨는 “추사 김정희의 삶을 완벽하게 소설 속 인물로 재창조했다”면서 “김정희의 내면 풍경에 대한 묘사가 다채롭다. 그런 점에서 역사에 방점이 찍히기보다는 소설에 방점이 찍히는 역사소설이다. 읽다보면 문득 고독진다”는 후기를 전해왔다.

이이화 선생은 “김정희를 전기가 아니라 소설로 썼으니 주목 받을 만하다”면서 “한 시대적 천재의 고단한 삶이 실감나게 다가온다. 특히 저자는 글씨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군데군데 깔아놓고 있다. 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풀이도 붙여놓고 있다”고 말했다.

나신하 기자는 “위기론이 팽배했던 국내 문학계가 베스트셀러를 잇달아 내면서 한숨을 돌리고 있다. 중견·중진 작가들을 중심으로 화제 작들이 이어진 덕분”이라고 전제하고 “본능과 탐욕을 추구할 것을 강요 받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감동과 함께, 자아 성찰 뒤의 부끄러움을 주는 특이한 책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분주한 일상, 때론 거추장스러운 짐 하나 떨어버리고 마음의 양식 한 권 들고 구석진 외딴 방으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책읽기 좋은 계절이다. **■**

다 변모하며 그 역사를 유지해왔다. 기자 출신인 저자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해왔던 ‘그들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다.

《박남준 산방일기》 박남준 지음 | 조화로움살 | 234쪽 | 값 9,800원
돈을 쓰지 않는 삶을 선택하면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주 모악산 기슭에서 살다가 지리산 자락 약양의 동매마을로 이사한 박남준 시인이 자연과 나는 이야기들을 글과 사진에 담아 조근조근 들려준다. 경제적 삶의 가치를 최고로 삼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준다.

